

# 제주출신 자매 골퍼 첫 샷 대결 예고

### 고지우·지원 PLK 퍼시픽링크스코리아 챔피언십 출격 16~18일 베트남서 개최... 임진희·현세린도 출사표

드디어 제주의 자매 골퍼가 동시에 출격한다.

2022 시즌 신인왕 포인트 2위인 고지우(20·도화 에드거)의 동생 고지원(18·삼천리)이 KLPGA 정규 투어에 데뷔전을 치른다. 그 무대는 KLPGA 투어 2023시즌 두 번째 대회 PLK 퍼시픽링크스코리아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이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베트남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88명의 KLPGA 선수들과 베트남골프협회 소속 선수 3명, 추천 선수 5명(프로 2명, 아마추어 3명)이 챔피언십의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2년차를 맞은 고지우의 각오는 남다르다. 2022 시즌 아쉽게 신인왕

왕 타이틀을 놓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게다가 동생도 2023 시즌부터 경쟁자로 나서기 때문이다.

고지우는 앞서 2023 시즌 개막전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 오픈에서 공동 61위를 기록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동생까지 함께 나서면서 고지우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즌 루기로 첫 출발에 나서는 동생 고지원이 어떤 모습으로 첫 선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고지원은 시드전에서 수석 합격한 김민별(18·하이트진로)과 아마추어 시절 최강으로 꼽혔던 황유민(19·롯데) 등과 본격적인 신인왕



고지우



고지원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4학년인 언니와 함께 골프채를 처음 잡은 고지원은 서로 경쟁하고, 의지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았다.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겼다. 자매골퍼로 동반 출격하는 첫 시즌 첫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즌 개막전인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공동 9위에 오르며 선전을

예고한 현세린(21·대방건설)도 2주 연속 TOP10은 물론 상위권 도약이 가능할 지 관심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출신 맏언니인 임진희(24·안강건설) 역시 시즌 개막전에서 공동 18위로 준수하게 시작했다. 임진희는 통산 2승의 주인공에서 벗어나 3승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다.

조상윤기자 halla21@halla.com

# 서귀포시청 이신우 라이트헤비급 1위 전국선수권대회 겸 북상국가대표 선발전

이신우(서귀포시청)가 제76회 전국선수권대회 겸 2023 북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예약했다.

이신우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라이트헤비급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신우는 8강전에서 심현웅(보령시청)에게 1라운드 기권승을 시작으로, 4강전에서는 김기채(수원시청)에게 3:0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김진지(수원시청). 결승전에서도 이신우는 3라운드에 기권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신우의 팀동료 정주형은 여자



정주형(왼쪽), 이신우

밴텀급 준결승전에서 양이영(구미시체육회)에 1라운드 기권승으로 결승전에 나섰지만 임애지(화순군청)에게 1라운드 기권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조상윤기자

# 퐁퐁 얼어붙은 프로야구 FA 시장

### 일각에서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 가능성 제기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퐁퐁 얼어붙은 모양새다.

양의지(두산 베어스), 박민우(NC 다이노스), 채은성(한화 이글스) 등 주요 선수들의 초대형 계약 소식이 나왔던 올해 스토브리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다.

지난 8일 LG 트윈스가 내부 FA 베테랑 불펜 김진성과 계약한 뒤 새로운 소식이 더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시장에 남은 FA는 총 7명이다. A등급으로는 사이드암 한현희(29), B등급은 우완 투수 정찬현(32)과 사이드암 이재학(32), 외야수 권희동(32)이 있으며 C등급은 좌완투수 강윤구(32)와 외야수 이명기(35), 내야수 신본기(33)가 남았다. 이중 계약 제의를 받은 선수는 이재학, 신본기 정도다. 이재학은 원소속팀 NC, 신본기 역시 원소속팀 kt wiz로부터 계약 조건을 전달받았다.

두 선수는 모두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학의 계약 희망 규모는 구단 제시액과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른 선수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한현희는 쪼그 경쟁력을 갖

춘 선수라는 평가를 받지만, 20인 외 한 명을 보상선수를 보내야 하는 A등급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정찬현도 러브콜을 보내는 팀이 없다.

키움은 아직 두 선수를 잡을 생각이 없다.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 출전명단에서 두 선수를 제외했던 키움은 계약 조건을 제시조차 안 했다.

일각에선 선수와 계약한 뒤 새로운 팀으로 보내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키움 구단은 소극적이다.

키움은 일단 올해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는 내부 FA가 미아로 남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원소속팀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얻고자 치르는 이적 방식이다. 키움은 FA 폐장 직전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키움은 몇 차례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재미를 봤다.

올해도 FA 시장 막판까지 한현희, 정찬현을 영입하려는 팀이 나타나지 않으면 같은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2연패를 향해 프랑스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 수비수 테오 에르난데스, 벤자민 파바르가 12일 도하의 자심반-하마드 경기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내일 오전 4시(한국시간)에 모로코를 상대로 준결승 경기를 펼친다. 연합뉴스

# “亞 경쟁력 핵심은 유럽파의 ‘경험’”

###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축구 선전 핵심 꼽아

국제축구연맹(FIFA) 기술연구그룹(TSG)의 일원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현장을 누비는 차두리(42) FC서울 유스 강화실장이 아시아축구 선전의 핵심으로 유럽파 선수들의 경험을 꼽았다.

차 실장은 1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TSG 브리핑에서 “아시아 팀들이 조별리그에서 전통의 강호를 꺾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고 돌아왔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유럽에 기반을 둔 호주, 일본, 한국 선수들이 많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주장을 맡은 선수도 있다”며 “유럽 팀과 경기에서 겁먹지 않게 되고,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 실장은 “내가 월드컵에서 뛰

던 2002 한일 대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뛰는 대표팀 선수는 2명이 있었다”고 돌아왔다.

당시 안정환 MBC 해설위원이 이탈리아 프로축구 페루자, 설기현 경남FC 감독이 벨기에 프로축구 안데르레흐트 소속이었다.

벤투호 내 유럽파는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이강인(마요르카),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 황의조(이상 올림피아코스)까지 8명이다.

일본의 경우 최종 명단 26명 중 19명이 유럽에서 뛰었다.

실제로 공격수 미나미노 다쿠미(AS 모나코)도 개막 전 교도통신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과 대결을 두려워하는 선수는(대표팀에) 한 명도 없다”며 “유럽의 소속팀에서 평소 애 하던 것처럼 뛸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제12회 제주 수출인의 날

- 수출우수상 (수출기업)**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삼달파머스육가공(주)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수출 유공자**
  - 김 태 수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 김 성 호 과장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고 영 상 계장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문 승 원 대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강 성 희 수출전문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박 정 근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제59회 무역인의 날

- 수출의 탑 (수출기업)**
  - 1억불탑 제주반도체
  - 7백만불탑 주식회사 디오션 (주)한국비엠아이 (주)에이치지동산상사
  - 5백만불탑 영어조합법인일출봉 (주)스키디웍스 인터내셔널
  - 3백만불탑 제주터넷
  - 1백만불탑 민재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오션팜
- 수출 유공자**
  - 대통령 김 호 립 부장 (제주반도체)
  - 산업부장관 김 연 우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
  - 장 동 훈 대표 ((주)대승)
  - 무역협회장 허 윤 석 교수 (제주대학교)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